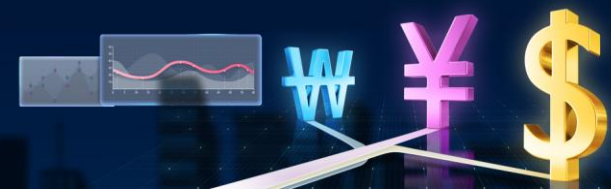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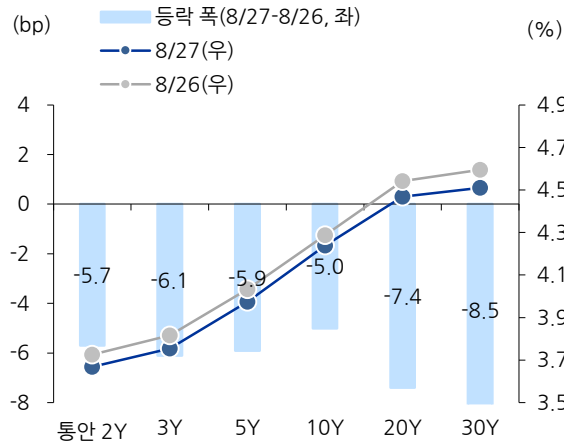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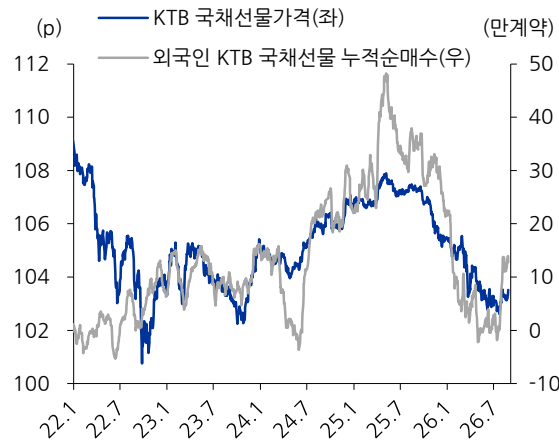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8/27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755%	-6.1	-5.6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238%	-5.0	-8.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8.3	47.2	51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3.51	19.0	29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6.33	39.0	76.0
	미국채 2년물	4.233%	2.1	4.3
	미국채 10년물	4.677%	3.0	-3.0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44.4	43.5	51.7
	독일국채 10년물	3.263%	1.5	-0.8
	호주국채 10년물	5.071%	6.1	9.6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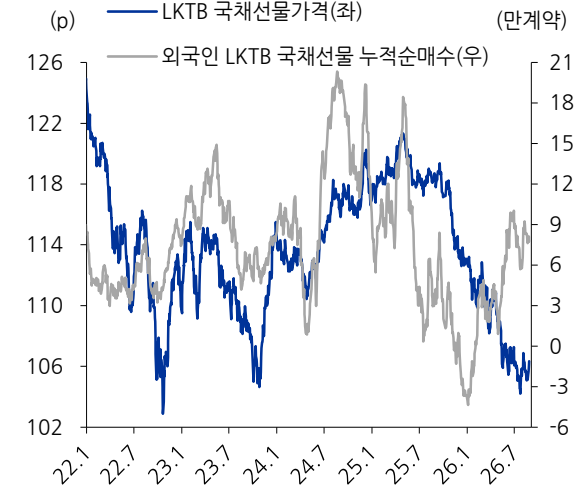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불 스티프닝 마감. 완화적 금통위 소화.
- 8월 금통위, 백투백 인상 단행했고 성장률 대폭 상향했으나 점도표 상단이 3.5%에 그쳤고 중간값 역시 3.25%에 그쳐 향후 완만한 인상이 예상된다는 점, 총재가 이번 인상이 선제적 대응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일부 상쇄.
- 백투백 인상 후 급등했던 단기금리는 통화정책방향문과 기자회견을 거치며 하락폭 확대. 장기물 역시 초장기물 발행 규모 축소 가능성과 외국인 매수세 등이 겹치며 강세 보였음.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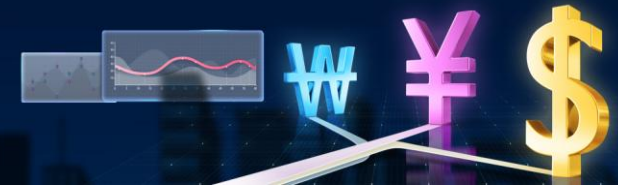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보합 마감. 잭슨홀 회의 앞두고 변동성 제한.
- 엔디비아 발 위험자산 선호로 금리 상승 출발했으나 잭슨홀 회의를 앞둔 경계심에 금리 등락폭 제한됐음. 장중 미-이란 관련 뉴스에 유가 등락하며 이에 일부 반응하는 모습.
- 백악관 대변인, 이란과 어떤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국들에게 6월 체결한 MOU로 복귀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하며 국제유가 소폭 상승. 이에 연동되며 금리 소폭 상승했으나 추가 상승 제한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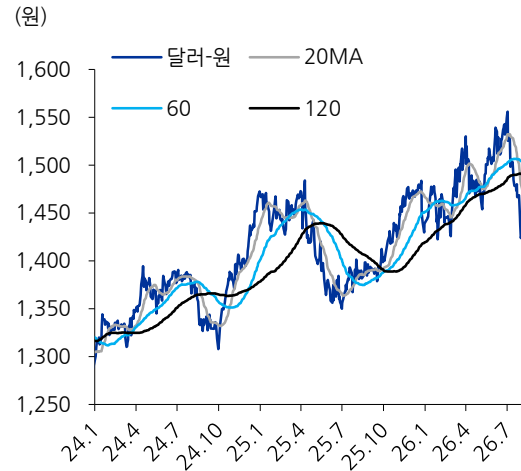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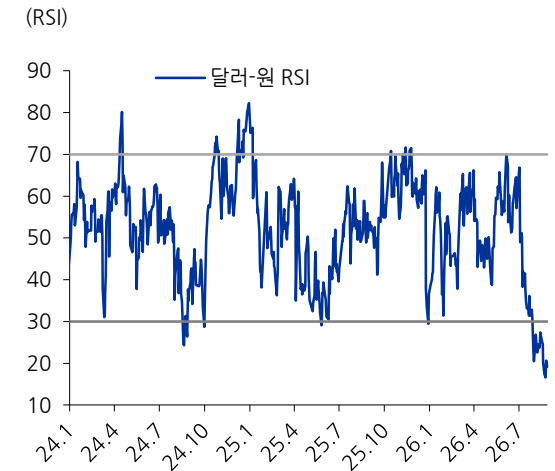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8/27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80.90	-0.3%	-0.8%
	달러지수	99.13	0.0%	0.3%
	달러/유로	1.17	0.0%	-0.2%
	위안/달러(역외)	6.72	0.0%	-0.1%
	엔/달러	159.37	0.0%	0.2%
	달러/파운드	1.36	0.0%	-0.3%
상품	해알/달러	5.16	0.2%	-0.6%
	WTI 근월물(\$)	83.53	1.6%	-4.9%
	금 현물(\$)	4,597.53	0.1%	1.7%
	비트코인(\$)	79,900	1.8%	9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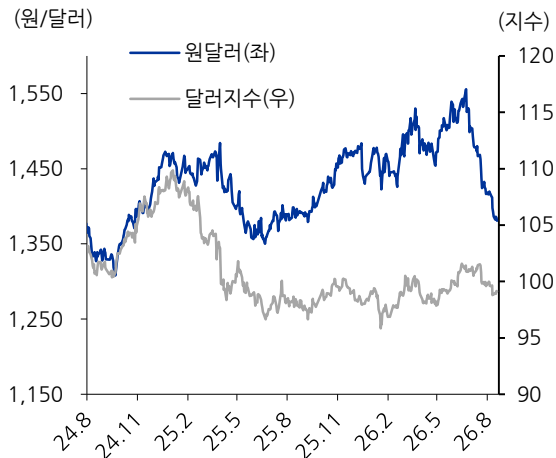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-3.90원 내린 1,380.90원 마감.
- 한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3.00%로 결정하며 원화 강세 재료로 작용. 7월에 이은 2회 연속 인상.
- 신현송 총재는 환율이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원화의 추가 강세 가능성을 언급. 당국의 원화 강세 용인 기조가 확인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99.13으로 보합. 주요 통화 대비 등락도 유로·엔·파운드 모두 0.0%로 사실상 무변동.
- WTI 근월물은 83.53달러로 +1.6% 반등(주간 -4.9%). 이틀간의 지정학 완화 되돌림 국면.
- 금 현물 4,597.53달러(+0.1%), 비트코인 79,900달러(+1.8%)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반 강세.